



(13) 백형조 前 도경국장·전남지사

■ 전라도 역사이야기

-무등산 녹차밭

“‘이철규 변사’ 타살이었다면 이미 밝혀졌겠죠”

지난 1989년 6월, 광주는 연일 이어지는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5·18 9주년 행사부터 시작된 학생과 재야단체의 시위는 6·10 항쟁 기념일을 지나면서 절정을 이루고 있었다. 이 해에는 특히 수배 중이던 조선대 이철규 학생이 5월10일 광주시 청옥동 제4수원지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위의 강도가 어느 해보다 심했다.

시위가 확산되자 전국에서 수십중대 수천명의 경력이 광주로 지원을 왔으며 이들은 전남도청 앞에서 연일 시위를 막고 있었다. 이때 이들을 총 지휘했던 인물은 백형조 당시 전남지방경찰청장(현 경찰청장)이었다.

하루는 시위대가 전남도청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을 강하게 밀어부치는 일이 벌어졌다. 불과 3개월 전에 전남도지사 공관이 화염병에 불탄 상황이어서 정부에서는 강경진압을 요구했다. 하지만 3개월 전 부임한 당시 백 경찰청장은 전남도청사 담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의 청사 진입만 막는 소극적 진압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 도청 건물 전면의 유리창은 모두 깨지고 정문 옆 경비실이 불타는 상황이 벌어졌다.

“강경진압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때문에 강한 진압을 명령하는 치안본부장에게 ‘모든 사태는 내가 책임지겠다. 필요하면 사직서를 쓰겠다’고 설득, 소극적 방어만 했지요. 강경진압을 하면 부상자가 늘면서 사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고향 후배들이 다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89년 도청진입 시위에 소극진압 명령

다음날 폭력시위 반대 여론 이끌어 내

일면 시위대의 기세에 놀란 것으로 평가받았던 백 국장. 때문에 본청에서는 감찰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도청이 수천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는 등 이수리장이 되자 다음날 시위에 대한 여론이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친 폭력시위는 안된다는 여론이 광주시민 사이에서 일기 시작한 것이지요. 시위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덜 받기 시작하면서 수그러들기 시작했어요. 감찰 결과도 물론 저의 시위 진압 방법이 옳았다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백 국장은 다음해 경찰대학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1991년 전남도지사로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지난달 20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백형조(71) 전 지사를 만났다. 그는 고흥 출신 선루배인 김재봉(74) 전 매일경제 회장, 박재동(71) 전 주택공사 토목본부장, 정태규(70) 변호사 등과 식사를 마치고 인터뷰에 응해줬다. 매일 오전 6시부터 8시30분까지 부인 장삼순(65)씨와 함께 골프연습을 하는 등 철저한 건강 관리를 한 때문인지 얼굴이 좋아 보였다.

이철규씨 변사사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백 전 지사는 유족들에 누를 끼치지나 않을 까 하는 생각에서 답을 꺼렸다. 하지만 경찰청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이기도 했던 그로서는 피해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약력

- ▲1936년 고흥군 점암면 출생
- ▲광주일고, 조선대 법학과 졸업
- ▲경찰간부후보(15기) 시험·행정고시(10회) 합격
- ▲전남도경 경찰국장(현 지방경찰청장)
- ▲26대 전남도지사
- ▲3대 전남발전연구원장

“그 당시나 지금, 상당수의 국민들이 공권력에 의한 타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주장하건데) ‘실족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권력에 의한 타살이었다면 연행, 고문 등에 관여한 사람들이 여러명 있었을 것이고 아무리 은혜한다해도 아직까지 안 밝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백 전 지사는 대학과 군 생활을 마치고 1963년 15기 간부 후보생 시험에 합격, 경찰에 투신했다. 그러다 일반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위해 1971년 행정고시까지 합격했다. 하지만 그는 경찰에 남았다. 치안본부장과 내부부장관을 지낸 정식 모씨의 간곡한 권유 때문이었다. 백 전 지사는 경찰에 남아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주요 직책을 두루 섭렵했다. 44대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는 90년 6월까지 13개월 근무했다.

그는 또 경찰대학장을 거쳐 1991년 2월 최인기 전남지사



지난 1991년 9월 추석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한 백형조 전남지사가 어린 이들을 위로하고 있다. / 광주일보 자료사진

(25대)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14개월여 동안 지사 생활을 마치고 1년 후에는 제3대 전남발전연구원장으로 취임했으며 1994년부터 3년 동안 차관급인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1997년 8월 공직에서 은퇴했다.

하지만 모범적인 공직 생활 때 시설을 방문한 백형조 전남지사가 어린 이들을 위로하고 있다. / 광주일보 자료사진

과거 사찰·인권탄압 사례 등 들춰내

향후 한국경찰의 새 이정표 세워야

으로 경찰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경찰의 자기 반성에 대해 누구보다 개혁적이다.

“한국 경찰은 민주·인권과는 상반된 불행한 역사적 유산에서 태어났습니다. 1894년 고종 31년 포도청이 경무부로 바뀌면서 경찰이 처음 탄생했는데 이는 파소적 경찰인 일본 경찰을 모태로 했습니다. 즉 국민을 봉사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탄압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는 일제시대 극단적으로 강화됐고 해방 후에는 일본 잡상이 경찰이 다시 자유당 정부와 유착하는 등 수 십 년간 한국경찰제도와 기능 및 조직문화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경찰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사찰, 응공조작, 인권 탄압, 정치개입 등 과거 국민들에게 잘못된 부분을 진술하게 들춰내는 작업”이라며 “일부 사람들은 매도한다고 생각하지만 향후 경찰의 이정표로 삼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로 교수와 각종 위원회 활동을 마감할 생각이었지만 ‘좀 더 도와달라’는 부탁 때문에 실패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모든 활동을 접고 지인들과 편안하게 지낼 생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고경성기자 ksgo@kwangju.co.kr

1912년 일본인이 다원 개원 광복 후 허백련 선생이 가꿔

가을이 깊어가고, 날이 차가워지면 따끈한 차 한 잔이 그림자. 요즘 건강과 웰빙 바람을 타고 청소년들까지 다향(茶香)에 젖어들고 있다. 특히 가을 녹차는 섬유질과 카데킨 성분이 많아 다이어트에 효과가 크다고 한다.

차는 아열대성 상록식물로 약산성 토양에 다우(多雨)지이면서 상대습도가 높은 곳에 잘 자란다. 우리나라는 남도를 중심으로 대와 소나무 밑에 자생한 야생차를 사찰 음료로 마셔왔다. 현재 다향(茶鄉)하면 보성을 말하지만, 광주 무등산 기슭의 차밭도 유명하다.

보물 제 131호인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이 있는 증심사(叢心寺) 뒷등에 차나무가 자생하고 있었다. 절 주위 운림동 신림마을 동북쪽에는 ‘차밭등’이라는 지명도 있다. 한국인으로 마지막 광주면장인 최상진이 소유하고 있던 차밭에 눈독을 들인 사람은 일본인이었다.



의재의 손자 허달재씨가 대를 이어 가꾸고 있는 무등산 차밭.

1912년 dots리현 출신으로 남문동 35(광산동 38)번지에 주소를 둔 오자개(尾崎齡三)는 증심사 주변 산록에 무등다원을 개원한다. 1937년에는 7ha 규모의 녹차밭이 조성되고, 광산동 73번지 현 광주은행 남부지점터에 가공 공장까지 갖췄다.

광복 이후 10ha 크기의 다원은 진도군 쌍정리 출신으로 1938년부터 광주 금동에 들어와 작품 활동을 하고 있던 의재(毅齋) 허백련(許百鍊1891~1977)이 맡는다. 석야 최원순과 오방 최홍종이 각각 석야정(石野亭)과 오방정(五放亭) 당호를 걸고 머물렀던 151번지를 1958년 의재가 춘설현(春雪軒)으로 개축한다. 지금은 의재의 손자인 허달재씨가 대를 이어 차밭을 가꾸고 있다.

춘설현 건너편 85번지에는 일제 때 요정 별장 춘목암(春木庵)이 있었다. 의재는 이곳에 증심사 절방을 빌려 시작했던 농업학교인 삼애학원(三愛學院)도 건립하여 차에 관한 관심을 드높인다. 광주를 방문한 육당 최남선은 의재와 차를 들면서 시조를 남긴다.

천고의 무등산이 수박으로 유명 터니  
출연히 증심촌설 새로 고개 쳐들었네  
이 백성 흐린 정신 행여 밝혀주소서

1986년 춘설현은 시기년물 제5호로 지정되었고, 2001년 학교 터 1천8백여 평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472평) 크기의 의재미술관이 개관했다. 같은해 한국건축문화대상을 받은 이 건물에는 의재가 애용했던 차도구와 함께 1997년 광주문화재자료 제22호로 지정된 석야·오방정 현관도 전시되어 있다.

증심사 아래 상가와 주택 등 100여채가 곧 이주할 예정이다. 앞으로 녹차 수확이 크게 늘어날 추세다. 새로 만들어질 1만여 평의 이주단지부터 연계하여 차나무를 심어 붙인다.

/김경수·새창도문화진흥원장



간호대학을 세운 100주년 기념으로 개원하는 **송하동 시티 재활전문병원 탄생!**

**간담회** 12월 14일(목) 오후 2시 30분, 3시 30분

**개원일** 12월 15일(금) 오후 1시

**주요 진료과** 재활의학과, 재활물리치료과, 재활언어치료과, 재활심리치료과, 재활스포츠과, 재활영상과, 재활영상의학과, 재활영상의학과, 재활영상의학과, 재활영상의학과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송하동 111-1 (송하동 111번지)

**문의처** 02-550-5000